걸그룹 잇달아 美 진출 기대만큼? 기대만 큼?

미국 인기 그룹 블랙아이드피스의 리더 겸 프로듀서 윌아이엠이 걸 그룹 투애니원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출처 | 윌아이엠 트위터(@IamWill)

투애니원·제이큐티·라니아 등 도전장
성공 가능성 미지수…도전 자체 큰 의미

'과감한 도전, 아니면 장밋빛 거품?'

걸그룹들이 잇달아 미국시장 도전에 나선다.

2009년 10월 '노바디'로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던 원더걸스를 비롯해 투애니원, 제이큐티, 라니아 등 네 팀이 올여름부터 내년까지 미국에서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그룹은 저마다 미국 현지의 거물 제작자나 프로듀서와 손을 잡고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투애니원은 블랙아이드피스의 윌아이엠을 프로듀서로 영입했고, 제이큐티는 레이디가가, 에이콘, 티페인의 음반제작자 멜빈 브라운과 손잡았다. 4월 데뷔한 라니아는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를 만든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를 통해 미국시장에 나선다.

이들 그룹보다 앞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원더걸스는 영국 출신의 유명 뮤지션 데이브 스튜어트를 비롯해 여러 유명 프로듀서들로부터 곡을 받았다. 박진영은 1일 트위터에 "참여한 세계적인 작곡가, 가수, 회사들을 보시면 왜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며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걸그룹이 잇따라 의욕적으로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성공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세계 팝음악 시장 중 가장 큰 미국이 결코 만만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한국 가수들이 미국 시장을 두드렸지만 임정희, 민, 지솔 등 박진영이 미국 진출을 주도했던 가수들은 음반 한 장 내지 못했다.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보아와 세븐은 음반을 발표했지만 냉정히 말해 기대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걸그룹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시장에 매달리다가 자칫 국내 활동에 공백이 생기다보면 훗날 한국 컴백에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다.

걸그룹 소속사들도 예전에 비해 신중한 모습이다. 세븐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실감했던 YG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세븐의 미국 진출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이 많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니아 소속사 DR뮤직 역시 "미국에서 반드시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부딪혀 보겠다"고 했다.

김원겸 기자

첫 정규앨범 '피노키오'로 컴백

데뷔 2년 만에 음악프로그램 정상에 오른 걸 그룹 에프엑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에프엑스라면 뭔가 특별해야…" 녹음 끝난 곡 가사·안무·창법 싹 바꿔

평범함 NO…외모도 금발 깜짝 변신
음원차트 1위·유튜브 300만건 조회

"이제야 우리 스타일 인정 정말 기뻐"
데뷔 2년만에 첫정상…구슬땀 보상

여성 5인조 에프엑스(f(x))의 기세가 무섭다. 4월19일 발표한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피노키오'가 발표와 동시에 주요 음원사이트 1위를 휩쓸었고, 유튜브에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10일 만에 조회수 300만 건을 돌파했다.

'피노키오' 뮤직비디오는 4월 가장 많이 본 동영상·최다댓글 동영상·최고평점 동영상 등에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4월2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서는 컴백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하면서 데뷔 2년 만에 음악프로그램 첫 정상에 올랐다.

에프엑스는 독특한 구성의 음악과 튀는 노랫말, 감각적인 패션, 생동감 넘치는 매력과 남다른 퍼포먼스로 다른 걸그룹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마니아 팬들이 많았다. 이런 그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폭넓게 어필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에프엑스 역시 "우리 스타일이 이제 인정받는 것 같다"는 루나의 말처럼 이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그들에게 음악 프로그램의 1위는 의미가 남다르다. 대중에게 잊히지 않도록 1년에 음반을 서너 장씩 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해야 하는 치열한 아이돌 시장에서 에프엑스는 11개월이라는 긴 공백을 가졌다. 더욱이 발목부상으로 지난 음반 활동에서 빠져있던 엠버가 다시 합류한 '온전한' 에프엑스로 정상에 올랐다.

●특별함 원한 이수만 "바꾸자" 제의

'피노키오'는 애초 다른 내용의 가사로 녹음까지 끝냈었다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에프엑스라면 뭔가 특별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가사를 새로 쓰면서 혼란을 겪었다. 가사가 바뀌면서 곡 분위기도 바뀌어 창법을 바꿔야 했고, 안무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 가사는 좀 '정상적'이었고, 대중적이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가사로 잘 안 쓰는 단어도 많았다.(크리스탈) 가사의 맛을 살려 독특하게 부르기 위해 창법도 많이 바꿔보고, 멤버들이 모여서 새로운 창법을 연구했다.(루나) 가사가 너무 어려워 멤버들의 도움을 많아야 했다.(빅토리아)"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에프엑스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정말 독하게" "강한 애정으로" 준비했고, 결국 1위로 보상받고 있는 셈이다.

11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멤버별로는 연기자로 또 뮤지컬 배우로, 쇼 진행자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빅토리아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닉쿤과 가상부부로 출연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얻어 지금 광고 및 화보 모델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하기 전에도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봤는데, 출연하면서도 재미있다. 한국어도 많이 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빅토리아)

그동안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엠버는 금발로 변신했다. "멤버들 개개인 활동을 참 재미있게 봤다"는 엠버는 "쉬면서 하루빨리 다시 활동하고 싶어 건강 회복에 많이 신경 썼다. 이젠 완전히 건강해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MBC 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에 출연했던 크리스탈은 "다음엔 액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에 출연했던 루나는 계속해서 뮤지컬에 도전할 계획이다.

팀의 막내인 설리와 크리스탈은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설리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로 패스트푸드를 사보고 싶다"고 했고, 크리스탈은 "오픈카로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스타 작곡가 총출동 다섯 멤버 개성 톡톡

에프엑스 1집은?

에프엑스의 첫 앨범 '피노키오'는 다섯 멤버의 뚜렷한 개성이 드러난 음반이다.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켄지와 지누를 비롯해 디자인 뮤직, 한재호, 김승수 등 유명 작곡가들이 참가해 음반에 수록된 열 트랙을 만들어냈다. 특히 인디밴드 페퍼톤스가 참여해 에프엑스의 다양한 색깔에 방점을 찍었다. 타이틀곡 '피노키오'는 강렬한 비트와 독특한 기타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일렉트로닉 팝 댄스곡이다. 페퍼톤스가 작곡한 '스탠드 업'은 페퍼톤스 특유의 건강한 음악과 에프엑스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잘 어우러졌다. 롤리팝은 힙합 사운드와 마칭 밴드 리듬이 혼합됐으며, 샤이니가 피처링했다. 이밖에 복고풍 멜로디의 '갱스타 보이', 보컬 이펙트가 인상적인 일렉트로닉 댄스곡 '빙그르' 등 열 곡은 에프엑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트위터@pudgala72

'파워그라'

대한민국 신뢰경영 혁신기업 & TOP브랜드 대상

정자수 41%, 남성호르몬 33%, 지구력 60% 증가!!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연구개발

농촌진흥청과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가 공동명의로 특허획득해 개발한 숫누에파워그라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해 더욱 더 각광받는 제품이다. 뿐만아니라 남성호르몬 33%, 정자수 41%, 지구력을 60%를 증가시킴이 동물 임상실험 결과 밝혀져 그동안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최진호 교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은 누에 숫번데기 추출물을 사용하여, 지난 1999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누에 강정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부경대 최진호 교수의 공동 명의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허의 제목은 "강정효과를 갖는 나방이 이전의 누에 숫번데기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식품 및 약제학적 조성물"이며, 2001년 3월 16일자로 특허출원(출원번호 제20001-01729호)를 실시한 후, 2004년 12월 7일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004-0462166호)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화약품에서 '숫누에 파워그라'라는 상품명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남자가 알고 파트너가 느낀다!

부부생활에 있어 함께 사랑을 느끼고 만족에 이른다면 그것만큼 좋은일이 어디 있겠냐만 중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체력도 떨어지고 성적 욕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소원해지고 인생살이에 지치는 등 모든 면에서 젊은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중년이 되어갈 수록 부부는 서로 만족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개발되어 출시된 '숫누에 파워그라'이다. 농촌진흥청과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 연구팀은 "교미하지 않는 누에 수나방과 번데기가 남성호르몬 33%, 정자수 41%, 지구력을 60%를 증가시킨다."는 파워그라 성분의 동물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숫누에 파워그라'는 서로에게 소원해진 중년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남성건강식품 파워그라 먹어보고 결정할 기회를드립니다

'스포츠조선 대한민국 신뢰경영 혁신기업&TOP브랜드 대상' 수상을 기념하여 좀 더 많은 분들께 파워그라를 경험하게 해드리고자 5일무료체험분은 물론 먹어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숫누에' 고개숙인 중년을 깨우다!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연구개발

농촌진흥청과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가 공동명의로 특허획득해 개발한 숫누에파워그라는 남성호르몬 33%, 정자수 41%, 지구력을 60%를 증가시킴이 동물 임상실험 결과 밝혀져 그동안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최진호 교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받은 누에 숫번데기 추출물을 사용하여, 지난 1999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누에 강정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공동 명의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특허 제10-0462166호) 특허를 획득하였다.

TOP브랜드 대상 수상기념 5일무료체험 행사 실시

특허받은 수컷누에가 남성력을 곧추세운다

농촌진흥청과 부경대학교 최진호 교수가 공동명의로 특허획득해 연구 개발한 숫누에파워그라는 누에나방의 수컷 전체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해 출시된 '숫누에 파워그라' 남성호르몬 33%, 정자수 41%, 지구력을 60% 증가 시켜 남성력에 도움을 줍니다.

특허번호 제10-0462166 호

■ 판매원 : 미래홈쇼핑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64 602호 ■ 대표자 : 박 윤 경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0-강원원주-00085호 ■ 전자우편주소 : dkcid1030@hanmail.net

☎ 1588-9146

2010 KOREA FIRST COMPANY & BRAND TOP BRAND 대한민국 신뢰 경영 혁신기업 & TOP브랜드 대상 sportschosun M&B

스포츠조선 주최

미래홈쇼핑 (대표 박윤경)은 신뢰경영과 탁월한 경쟁력을 통해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위 상을 수상하였다.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파워그라' 특허번호 제10-0462166호